



## 제 3회 물류인대상 최고경영자상 수상

포장규격 표준화로 물류표준화 정착 앞장

서병륜 / 한국컨테이너폴(주) · 한국파렛트폴(주) 대표이사

**제** 난 달 1일 화물의 유니트 로드시스템 구축으로 한국로지스틱스대상 최고경영자 부문에 서병륜 한국컨테이너폴(주) · 한국파렛트폴(주) 대표이사가 선정이 되었다.

화물의 유니트로드 시스템이란 물건의 효율적인 취급을 위해서 화물을 한 단위로 취급하는 방식이다. 그로 인해 탄생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파렛트이다.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주신 상이라 더욱 기쁩니다. 개인적인 흥미가 21년째 이 일을 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수상까지 하게 되니 책임감이 더욱 막중해 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서사장의 물류와의 인연은 1977년 대우그룹에 입사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회사의 생산품목인 지게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물류형태 파악이 시급한 문제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영국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의 물류형태 등을 답사다니면서 물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키웠다고 한다.



“제가 물류와 인연을 맺고 약 10여년간은 물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계몽운동에 주력했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연구회 활동이나 해외 사찰단 모집, 해외 초청세미나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류라는 게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물류는 미개척분야로 남아있어 아쉽기만 합니다”

1985년 한국파렛트폴(주)을 설립하면서 물류발전에 대한 초석을 다지기 시작한 그는 96년 한국컨테이너폴(주)을 세우면서 더욱 물류표준화에 매진하게 되었다.

연간 수십억톤의 움직이는 물량은 수송시각 및 인력의 많은 소모를 가져온다.

하지만 파렛트의 등장으로 야기되기 시작한 화물의 유니트로드 시스템의 확립은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편리성, 기업의 저비용 효과들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물류는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유니트로드시스템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또한 관계 정책당국의 담당자들도 잦은 교체로 인해 전문가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야기되는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물류는 현장교육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책으로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쌓은 경험만큼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동이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서사장은 생활물류에 대한 부분을 짧게나마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서 다루어주어 물자와 생활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알아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물류의 표준화, 공동화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급선무로 포장규격의 표준화를 주장하고 있는 서사장은 “유럽은 포장 규격이 60cm×40cm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물류가 가장 앞서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69종의 포장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류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죠. 이런 포장규격의 다양화는 파렛트의 다양화를 가져오고 결국은 물류 표준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포장규

격을 550mm×366mm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업체별로 다양한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 한가지 규격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에 대해 많은 반대 의견이 있긴 하지만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1,100mm×1,100mm 으로 표준파렛트를 정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는 물류표준화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송수단 등을 고려할 때에 가장 적합한 규격이라고 한다.

많은 부분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물류분야의 표준화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얘기하는 서사장은 관련업계 서로간 양보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연결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서로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하며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지 않고 양보·절충을 통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본, 대만과 연계하여 아시아지역의 파렛트폴의 발전방향 모색 및 향후 T11형 표준파렛트를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 확산시킬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서사장은 먼 미래를 위한 투자를 20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몇 안되는 기업인이 아닐까 싶다. ☐

이선경 기자